

윤활소식

—수입윤활유 불량품을 국산보다 4배—

외국에서 수입된 윤활유와 그 리스유등 일부석유제품의 품질 불량율이 국내제품불량율보다 훨씬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품질검사소가 발표한 “91년 석유제품품질검사결과”에 따르면 윤활유의 경우 작년 한해 동안 수입된 3만3천6백25드럼 가운데 1천4백71드럼이 불량품으로 판정돼 4.37%의 불량율을 기록했다.

반면 국산윤활유제품은 전체 조사대상 20만1천3백93드럼 가운데 3천6백54드럼이 품질불합격 판정을 받아 불량율이 1.25%에 불과했다.

한편 석유품질검사소측은 이 와같이 수입품이 불량율이 높음에 따라 불량품의 국내유통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하여 검사방법을 현행 통관후 검사에서 통관전검사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雙龍精油(株) 協會加入—

雙龍精油株式會社(代表理事·張錫煥)는 92.3.27자로 협회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에 앞서雙龍精油는 폐윤활유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여왔으나 3월8일자로 타사와 같이協會를 한창구로 공동처리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이수화학·신제품 루비아XT 발표회 성료—

이수화학공업(주·대표이사

김찬욱)는 지난 4월6일부터 14일까지 서울 힐튼호텔을 비롯하여 전국 6대도시에서 윤활유유통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초청하여 신제품 루비아XT발표회를 가졌다.

이번에 발표한 루비아XT는 CF-4급 디젤엔진오일로 API 규격과 유럽자동차제작자협의회(CCMC)의 규격은 물론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의 벤츠, 폭스바겐, 볼보 캐터필라등의 최신규격을 만족시키는 우수한 품질임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이수화학은 6ℓ 용기를 최초로 선보여 업계의 관심을 모았는데 짚차 또는 1톤이하의 트럭은 엔진오일의 용량이 6ℓ 이어서 소매점과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고 루비아XT의 용기재질이 TIN CAN이 아닌 프라스틱재질을 사용하여 환경오염방지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이수화학 측은 루비아XT가 엔진보호, 연료절감, 배기ガ스 규제성능이 탁월한 제품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윤활 최적화 조사연구—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이사장 강증모)는 KIST와 지난 1년동안 공동연구해온 “마모 검지 진단기술 및 마찰 감소제의 사용 관리 지침에 따른 윤활 최적화의 조사연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이를 윤활유의 올바른 사용관리 지침으로 활용토록 관련

업체에 배포하였다.

일반산업체의 경우 기계설비 보전 및 윤활유 사용등이 단지 경험에 의한 기능인에 의하여 무절제하게 관리됨으로써 국가적인 자원낭비와 산업설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사용오일의 교환주기가 애매함에 따라 부적절한 윤활관리에 기인한 환경오염의 유발과 기계설비의 부식마모등 악영향을 일으키고 있어, 산업체의 올바른 설비보전과 적정한 윤활유 사용기술의 획득 및 마찰감소제의 사용관리 지침 확립 등 과학적인 윤활관리기법의 정립을 위하여 동검사소가 이 연구를 추진해왔다.

검사소는 이 보고서에서 마모검지 진단기술과 마찰 감소제의 사용관리 지침을 적극 활용할 때 에너지절감 및 기계류 수명 증대는 물론 윤활유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관리할 수 있고, 또한 산업생산의 각종 설비가 항상 최적의 상태로 가동·유지될 수 있으므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Peter Jost보고서에 의하면 동연구 결과와 비슷한 체계적인 윤활관리를 실시함으로서 산업체에서는 약 10~30%의 에너지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분석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1년도 윤활유 총생산량을 310만 D/M으로 볼때 대략 31만 D/M~93만 D/M 이상의 오일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기계

류의 수명 증대, 보수유지 절감 기대와 과학적, 체계적인 윤활 기술 토착화로 기계설비 보전효과도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검사소는 '92년도에도 항공 우주과학연구소(공사부설)와 공동으로 국내 생산엔진용 오일의 교환주기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

한 "자동차 가솔린 엔진오일의 최적 사용한계설정에 관한 연구"를着手하였다.

윤활학회 소식

◎제7회 윤활강습회 개최

한국윤활학회(회장·안명주)는 5월21·22일 양일간 서울 KIST 제4회의실에서 제7회 윤활강습회를 갖는다.

현장위주로 계획한 금번 강습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학회측은 관계인의 많은 참강을 바라고 있다.

(연락처 0342-46-2974)

5월21일

내연기관의 윤활시스템 : 김청균(홍대 교수)

윤활유첨가제 이론과 실제 : 이옥동(경인에너지 과장)

내연기관용윤활유(엔진유) : 문우식(유공연구소 박사)

4싸이클 가솔린엔진냉각에 관하여 : 이은현(현대자동차연구소 과장)

5월22일

윤활유및 첨가제 운용 : 최웅수(KIST 박사)

광유계윤활기유의 기초 : 유용진(쌍용정유 과장)

폐윤활유처리실패와 문제점 : 권선대(동성산업 대표이사)